

제 목	국 문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의 요통 발생에 미치는 요인		
	영 문	Factors affecting back pain occurrence in shipyard worker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홍 윤 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하 은 희, 박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Yun Chul Hong <i>Inha University Med. College, Dept. of Prev. and Social Medicine</i> .Eun Hee Ha, Hye Suk Park <i>Ewha Women University Medical College, Dept. of Prev. Medicine</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홍 윤 철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2월			

1. 연구 목적

조선업은 노동강도가 무척 큰 사업장으로 중량물 취급을 흔히 하는 곳이다. 또한 작업공정의 특성상 기계화, 자동화로 작업이 행해지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요통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요통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에서 요통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과 작업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요통 발생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작업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995년 1월 1일 이후 요통으로 인하여 산재요양을 하였던 15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환자군으로 하여 6월 1일부터 면담을 통하여 연구자가 직접 물어보아서 설문을 작성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요통과 어깨, 목의 통증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무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생산직 근로자로 하였고 환자군과 1:3의 비율로 무작위로 선택하여 연구자가 직접 물어보아서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에는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 만족도, 중량물 취급강도, 작업공간과 작업자세, 연장작업회수 등이 포함되었다.

3. 연구결과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연령 및 근무기간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에서는 작업만족도 및 작업반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에서 환자군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물 취급에 있어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중량물을 더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차비는 9.78 (95% CI: 1.73~55.30) 이었다. 작업공간 및 작업자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자군에서 서서 허리를 비트는 작업이 많았다. 또한 연장작업에 있어서 환자군의 연장작업회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있었던 변수와 기준에 의미있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모형에 넣고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장 유의한 변수는 중량물 취급이었으며 작업조건 만족도와 연장작업회수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이상의 결과에서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의 요통 발생에는 중량물 취급 및 연장 작업 등 작업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